



진안군은 22일 제19호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함에 따라 태풍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항로 군수 주재로 재난 협업 실무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황판단 및 대책점검회의를 가졌다.

태풍 '솔릭' 대비 준비태세 완료

진안군 대책점검회의 개최
재난대책본부 가동 등
인명·재산피해 제로화 만전

진안군은 22일 제19호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함에 따라 태풍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항로 군수 주재로 재난 협업 실무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황판단 및 대책점검회의를 가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솔릭'은 중심기압 950hpa, 최대풍속 43m/s, 강풍반경 380km의 매우 강한 중형급 태풍이다.

22일 현재 우리나라 방향으로 북상하고 있어 23일에서 24일 사이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축산 시설피해가 우려되는 등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보됐다. 이날 회의에서 이 군수는 "태풍이 지·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해취약지역의 철저한 점검과 비상근무 태세에 만전을 기해 태풍 피해 최소화에 주력해야 한다"며 "태풍 피해가 없어야 하겠지만 특히 인명피해 제로화에 초점을 맞춰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안군은 태풍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대비와 비상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 할 수 있도록 재난대책본부를 가동 하는 등 준비태세를 마쳤다. 특히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사태 위험지, 캠핑장, 대형공사장 및 읍·면 소재지의 간판고정, 현수막 제거 등의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고 농작물 및 비닐하우스 등 농·축산 시설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조치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앞장

안전 농산물 공급 위해
잔류농약 분석장비 보강

진안군이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신뢰,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사업비 3억(국비 1.5, 군비 1.5)을 확보하고 잔류농약 분석 장비를 보강했다고 22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전면 시행되면 농업생산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농약과 미등록 농약 사용 등으로 부적합한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잔류농약 부적합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군은 기존 245개 성분 분석에서 320개 성분으로 성분수를 확대 분석하기 위해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GC/MS/MS) 등 잔류농약 분석 장비를 보완했다. 장비 조건설정과 시험가동을 거쳐 9월부터 한층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을

로 잔류농약을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2015년부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전문가를 채용해 잔류농약 검사 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했다. 고향할머니 장터, 로컬푸드 판매점 등 관내 생산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분석으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진안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장비보강으로 강화되는 PLS제도와 분석항목 강화에 빠르게 대응해 관내 생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향상시키고,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전망"이라며, "앞으로는 중금속 분석까지 확대 시행해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자원봉사 활성화 최선 다할 터"

장수군자원봉사종합센터장에
이미자씨 취임·워크숍



장수군은 22일 제4대 장수군자원봉사종합센터장 취임식 및 자원봉사자 워크숍을 장수군자원봉사종합센터 주관으로 천천면 소재 나볼리조트 웨딩홀에서 자원봉사자 및 내빈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은 1부 행사로 장수군자원봉사종합센터장 취임식을 시작으로 2부에서는 자원봉사자 워크숍을 진행했다. 센터장으로는 폐폐이미용봉사단 회장으로 10여년 동안 자원봉사 활동해온 이미자씨가 제4대 장수군자원봉사종합센터장으로 임명돼 장영수군수로부터 임명장 수여를 받아 2년간 활동하게 된다. 2부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소통 및 화합을 위해 전)전주시자원봉사센터 시태봉센터장의 '자원봉사'로 힘찬 장수만들기 주제로 자원봉사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강의

했으며 오후에는 자원봉사자들의 화합과 교류의 레크레이션 시간을 가졌다. 이미자 센터장은 "그동안 자원봉사자로 현장에서 활동 하며 몸소 느낀 크고 작은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센터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군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 행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자원봉사에 대한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었으며 함께 토론하고 교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돼서 너무 보람찬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은 지난 21일 무주보건의료원 대회의실에서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사회복지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생명사랑지킴이 게이트 키퍼교육을 실시했다.

무주 생명사랑지킴이 역할
게이트 키퍼 교육 실시

무주군은 지난 21일 무주보건의료원 대회의실에서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사회복지종사자 50명을 대상으로 한 생명사랑지킴이 게이트 키퍼(Gate Keeper)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무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무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가 공동 주관해 마련된 것으로, 참석자들은 자살 통계 현황 및 자살 위험요인, 보호요인, 자살 위험징후, 생명사랑지킴이 역할을 공유하고 전문가와 연계 한 정보교육을 듣는 시간을 가졌

다. 생명사랑지킴이 게이트 키퍼란, 주변에서 자살하려는 사람을 찾아내고 찾은 경우 적절한 도움을 주거나 전문기관에 연계해 자살시도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무주군에서는 6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게이트 키퍼 역할을 자처해 생명사랑지킴이 교육을 받았다. 무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한영순 주무관은 "생명사랑지킴이 교육은 자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자살예방 활동에 기초가 되는 것이 만큼, 지역사회 내에서 더 많이 공유될 수 있도록 군에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매아리

진안 지역아동센터 순회 영양교육

진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정공주)에서 최근 관내 지역아동센터 아동 250여 명을 대상으로 방문 영양교육을 실시했다. '나는야 건강 박사'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어린이 방문교육은 저염 건강간식 쿠키 클래스를 통해 나트륨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알아보고 나트륨을 적게 먹을 수 있는 가공식품 섭취 방법을 알기 쉽게 알렸다. 순회 방문교육은 관내 영양사 고용의 무가 없는 지역아동센터 12개소 어린이를 대상으로 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배울 수 있도록 진행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공주 센터장은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건강한 먹거리와 안전한 급식소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홍삼배 배구대회 25일 개막

제9회 진안홍삼배 전국남배구대회가 오는 25일부터 2일간 진안문화체육회관과 8개 보조구장에서 열린다. 진안군배구협회(회장 송서환)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108개 팀 2,200여명의 배구 동호인이 참가해 홍삼의 고장 진안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종목은 남자3부(2부·3부·야마장년부)와 여자부(3부)로 진행된다. 경기방식은 9인제로 예선전은 조별리그, 본선은 토너먼트로 우승팀을 가린다. 이번 대회는 배구 저변확대와 동호인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창설한 대회로 해를 거듭할수록 전국 배구 동호인들의 화합의 장으로 정평이 나갔다. 지난해 남자부 클럽2부에서는 고창 흥덕초 OB팀이, 클럽3부는 완도황제전북(홍삼부), 송파광스(미이산부), 장년부는 남양주 배구시장이 우승을 차지했다. 여자부는 전주하나물(홍삼부), 광주전클럽(미이산부)이 정상에 올랐다. 이항로 군수는 "대회기간 동안, 세계적인 명산 미이산과 건강의 상징 진안홍삼이 어우러진 대한민국 건강놀이터 진안에서 멋진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홍삼주